

AGORA

IGSE Newsletter



‘영어는 셀프다’



문 용 (총장)

서둘러 말하지만 나는 이 글의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제목을 바꾸면 그만이지만, 한참 생각하다 따옴표로 묶어 그대로 두기로 했다. ‘영어는 셀프다’는 말하자면 저 ‘커피는 셀프입니다’의 패러디이다.

요즘에는 식당에 들르면 카운터나 벽에 곧잘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커피는 셀프입니다’가 붙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에 거부감을 가졌을 법한데, 말이란 것이 묘해서 어색한 말도 자주 쓰다 보면 (웁건 그르건) 익숙해진다. 얼마 전에 남해 안에 갔었는데 작은 어촌의 허름한 식당에도 ‘커피는 셀프입니다’가 붙어 있었다.

‘커피는 셀프’라니까 생각이 미치는 것이 ‘영어도 셀프’이다. 한국인들이 영어를 익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는 영어가 쉽지 않다는 것만 내세우고,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닐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건만, 오르지 않고 뫼만 높은 것을 탓하는 사람들처럼.

얼마 전에 한 학생이 학교 인터넷에 글을 올려, 도서관과 본관 건물을 English Zone으로 하자고 제의를 한 바 있다.

본교에서는 일 주일에 10시간씩 학생들에게 4학기 동안 말하기와 쓰기의 집중 훈련을 시킨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유창한 영어를 말하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 나라에서 영어를 잘 하려면 남이 볼 때는 ‘미치기라도 한 것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난 봄 월례 특강 때 본교에서 초청했던 C 선생이 한 말이 생각난다. C 선생은 (역대 다섯 분의 대통령의 불어 통역도 맡았던) 통역 전문가의 1인자다. 통역학을 공부하려 프랑스에 건너갔던 C 선생은 하루에 13시간 내지 15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3년간을 통역과 번역과 어학 연습에 매달렸다고 한다. 최근에 본교에서 특강을 한 P 교수는 논 한 마지기 팔아서 단파 라디오를 사서 고기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영어 방송을 하루에 3시간씩 (그러니까 어림잡아 7500시간(!)) 들었다고 한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P 교수가 영어에 미친 또 하나의 증거로 그는 대학에 다닐 때 ‘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영문과의 모든 시험의 답안을 영어로 썼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본교 인터넷에 글을 올린 학생은 영어를 잘 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영어를 챙겨야 한다는 각오로, English Zone을 설정하고 English Zone에서는 학생끼리 영어만을 사용하자는 제의를 한 것이다. 이 학생의 제의에 많은 학생들이 적극 호응했다니, 나는 반갑고 이 English Zone의 아이디어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우리라.

(그건 그렇고 ‘커피는 셀프입니다’를 영어로 옮기면 무엇이 될까? ‘영어는 셀프다’는?)

발행일 / 2004년 12월 10일
발행처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발행인 겸 편집장/ 문 용
편집 / 김영우 이정은
주소 / 134-847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9-11
홈페이지 / <http://www.igse.ac.kr>
전화 / 02-6477-5114
이메일 / webmaster@igse.ac.kr
디자인 / 영애드(02-719-4544)

Contents

● 특집 1 : 1기 졸업생을 배출하며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져요” / 정현숙
Come Study with 'Us' at IGSE / Jakyung Gu
1기의 IGSE 2년 생활 일지

● 특집 2 : 영어 교재 개발

산학협동을 통한 영어 교재 개발 / 정영국
영어교재 시장의 현황과 전망 / 김민기
엄마가 가르치는 유아영어교재 / 정영애

● 전문가 칼럼

새로운 영어교사 연수기관의 설립을 제안한다 / 김임득

● IGSE Library

도서관 소장 도서 소개

● Faculty Column

A Spark to a Flame: Experiences of a Researcher/Scholar / David D. I. Kim

● We're IGSEan

졸업 후 세 달째... / 송자경
영어교육의 이론, 그리고 실제 / 이진영
IGSE와 함께 한 1년, 그리고 함께 할 미래 / 문은경
Another Self / Sujeong Song

● Focus

IGSE 강좌 소개 : 전산편집과 그래픽 / 영어교재개발학과

● News & Events

● English Today에 실린 IGSE

● 2005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져요”



정현숙 (영어지도학과 학과장)

벌써 3년째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도학과 3기생 24명을 개별 면담하였다. 3년간 반복된 일인데 올해도 기분 좋은 말은 계속되었다. “훌륭한 교과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학비까지 면제해 주니, 학교의 배려가 고마울 따름입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결같이 하였다. 이유 타당한 불만도 3년간 계속된다. “학교에서 부과한 공부량이 너무 많아 대학원생답게 보고 싶은 책을 읽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등등의 불평이다.

2년 전 이 때쯤, 1기생들이 제기한 똑같은 불만에 대해서는 개교하는 학교의 교수로서 주관적 비전과 확신만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 “1학기는 기초 작업을 하는 시기가 무척 바쁘겠지만 학기가 지날수록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고, 영어 공부는 방학 중에 마음 독하게 먹고 열심히 하라”고 설득해서 보내곤 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음이 흔들리곤 했었다. 그러나 2기를 거쳐 이번 3기생 면담 때는 “선배들도 처음에는 그런 소리 했는데 졸업할 무렵에는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나가서 고맙다고 말하더라”고 객관적이고도 차돌뻤이처럼 확신에 찬 답변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니 학교가 문을 열 때부터 고락을 같이 해 오면서 나에게 이런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준 1기생이 보다 살갑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1기생들과 첫 학기를 마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믿고 따르라”는 말만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2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믿고 따라 준 1기생 덕분에 이제는 2, 3기생들에게 “힘들어도 선배들은 다 해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주관이 객관화되는 경험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졸업을 앞두고 연구실에 찾아온 1기생은 이런 말을 하였다.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초보자에게 영어 듣기 실력을 길러 주려면 intensive listening을 시켜야 할지 아니면 extensive listening을 시켜야 할지 무척 궁금하여, 영어 수업 하기 전 5분씩 반별로 방법을 달리하여 듣기를 시키곤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원에 와서 그런 자료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무엇보다 고맙습니다. 물론 영어 실력이 향상된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 처리하여 의문들을 하나씩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학생은 광주에서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 2년 동안 휴직하고 아이들과 서울로 이주하여 본교에서 수학하였는데, 결국 본인이 궁금해 하던 것을 한 학기 동안 동료 교사에게 부탁하여 실험한 후에 석사논문으로 발전시키고 ‘영어교육’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부지런함까지 보였다. 영어를 잘 하는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지도학과 특성상 석사논문은 선택 사항인데도, 1기생 중 8명이 재학 연한인 4학기 만에 논문을 완성하고 이 중 4명은 ‘영어교육’ 학술지에 그리고 1명은 ‘외국어교육’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나머지 3명은 학술지 논문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본과의 특성상 영어로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 확보 목표를 위해 학생들에게 즐기찬 압력을 가하였는데, 졸업 무렵에는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급우들 앞에서 영어 수업 시연을 하는 것을 보고 교육의 힘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영어교육에 관한 한 최고의 MBA



과정에 맞먹는 지독한 훈련을 시키겠다는 확고한 결의로 문을 연 학교이지만 학생들이 견디지 못하고 한 두 명씩 떠나갈 때마다 모두가 느꼈을 아쉬움,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학교가 정말로 최선의 방향 설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수없는 자문자답에서 오는 두려울 정도의 중압감 등은 19명의 졸업생(영어지도학과)을 배출함으로써 말끔히 사라졌다. 이제는 어느 누가 혹독한 교과 과정에 의문을 제기해 와도 “선배들은 다 해 냈는데?”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믿고 따라’ 준 1기생들이 하나하나 머리에 떠오른다. 휴일이나 방학 중에도 변함없이 lab에서 지내다가 밤늦게 나와 마주치곤 했던 졸업생, 학교에 입학한 이후 저녁 식사 때마다 영어 테이블을 틀어 놓고 웅얼 웅얼 따라 하는 아내에게 제발 저녁만이라도 편안히 먹을 수 없느냐며 화를 내던 남편이 이제는 즐거워하며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영어를 따라 한다는 졸업생, 두 엄마의 아이로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항의를 하더니 졸업할 무렵에는 버릇없이 굴어 미안했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는 졸업생,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좋았는데 이제 현장에 나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니 친구들의 비판이 그림기만 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졸업생, 고등학교에 복직하니까 본인이 가르칠 과목으로 이미 영어 회화, 작문이 내정되어 있어 아주 즐겁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쩌다 중간중간 학교에서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앉아 있으면 불안해진다는 졸업생 (졸업할 무렵 되니까 1기생의 공통된 의견이 이제 모두 공부에 중독이 되었는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복직 후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게 되어 아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영어를 10분씩 가르친다는 졸업생, 공교육 교사 연수기관에 취직이 되어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면서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는 동기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한다는 졸업생, 박사과정 안 만드냐고 성화를 부리는 졸업생 등등 하나 같이 나에게서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1기생 졸업식 날, 웬일인지 아침부터 심란하였다. 점심 생각도 별로 없고 해서 간단히 요기만 하고 졸업식장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공항에서 남들이 헤어지면서 우는 것만 보아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 이 날도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졸업생 대표가 나와, 도박하는 심정으로 아무런 지명도 없는 신설 학교를 선택했고 아무리 주변을 둘러 보아도 조언을 해 줄 선배라고는 없는 학교에서 1기생들끼리 푹푹 뭉쳐 벽차기만 했던 완주를 결국 해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앉아 있던 나머지 같이 울고 말았다. 이를 눈여겨보았던 2기생이 “선생님, 이제 1기생도 나갔으니까 반으로 나뉘었던 정을 저희한테 모두 주실 거죠?”라고 항변하길래 “1기생들과도 겨울 방학 때 하와이 연수 가서 호텔에서 밤을 새며 친해졌어. 2기생들과도 이번 겨울 방학에 하와이 연수 가면 더 친해질 거야”라는 말로 토닥거렸는데 2기생들과 2주 동안 하와이서 같이 생활하며 정을 나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1기생들과 탄성을 발했던 와이키키 해변에서 이번에는 2기생들과 감탄사를 발하며 3기생을 더욱 모질게 다룰 내공을 축적하겠지...

Come Study with ‘Us’ at IGSE



Jakyung Gu
(Dep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I am an English teacher but I am not linguistically smart. To begin with, I was not able to speak properly in my mother tongue. My sister always made fun of my pronunciation of ‘ra’ and ‘la’ and laughed at me for not being able to distinguish them. I even fell behind others in mastering Korean writing system when entering elementary school. In middle school, English marked the lowest score. When I moved to the States, I experienced a number of failures in conveying my thoughts to others. I am scared of not being able to make myself understood in English. I also don’t have keen ears to catch different sounds. These made me believe I am no good at language.”

Rearranging the stuff I retrieved from the locker in the library after the graduation, I came across this answer I put down on the Study Guide worksheet from the second semester Methodology class. The professor, Douglas Margolis wanted us to reflect ourselves on the beliefs about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under the topic of ‘The Role of Beliefs and Identity in Language Learning’ and the above was the result of my self reflection. Reading the answer over and over again, I raised a big question mark, “Am I fit for an English teacher?” Yes, it is undeniable that I am a slow language learner, but I dare say I can be a good learner. Now, I can make a good language teacher, too. I have been grappling with my languages for two years at IGSE.

IGSE gave me a sense of belonging and I believe this helped me to enhance self-confidence, which eventually engraved a positive image on me. Going through adolescence in the States without fluency in English, I didn’t make many friends and I wasn’t included in their group. One time in P. E. class, I was the only one who was not drafted into any team when playing volleyball. I wasn’t fully aware of what was going on but I knew I was not welcomed and I felt like an outcast. It was the most humiliating experience for a sensitive 14-year-old girl. Even after I started to understand and speak the language, not much had changed. I didn’t get a right sense of being ‘one of the members.’ This sense of ‘not belonging’ perpetuated even after I returned to Korea. The classmates did not regard me as one of them. Whenever I became a new member of some group or organization, I just thought I was different and insignificant.

However, IGSE was unique in making me believe I am ‘one of them.’ Through the speaking and writing classes during the first semester, I shared many personal histories and feelings with the classmates. Also in the first semester, I would know everyone would be logging on the Cyber Class(IGSE Intranet) every Sunday night. I learned that we share the same worries and hopes for English education in Korea through various discussions and opinion postings.



I remember laughing my head off for seeing everybody using ‘flabbergasted’ in speaking and writing classes in the third semester. All of a sudden, everyone seemed to be experimenting with the new vocabulary. Often the new vocabulary lists were ‘sensationalized’ in no time. Everyone who was obsessed with completing the crossword puzzles became ‘us.’ Luckily, I became ‘one of us,’ too. This sense of ‘belonging’ makes me believe that I am important in IGSE and that I can do better.

IGSE provided me with a sense of achievement, which encouraged me to set a higher goal in my teaching career. Public presentations, speeches, synthesis papers, cyber class postings, portfolio work, projects and various assignments and tests gave me the feeling that I have done and can do something special and worthwhile for the future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Before entering IGSE, I was not sure if I was teaching English properly in class nor was I certain of what was needed of my students. I tried to justify my failures of delivering teaching objectives and enlightening students by blaming other factors, such as school systems, teaching situations and environments. Now I know I can do better than just blaming the other factors. With enthusiasm and devotion, I will throw myself in motivating my students to like English and to study English. IGSE taught me I can do better.

Several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graduation and I miss rushing into Line 5 Subway not to be late for morning classes, talking with my partners in the speaking and writing classes, working on IT assignments, and reading articles on English education every day. Personally, IGSE made me proud of myself for being an English teacher in Korea and I really appreciate it. I am also thankful to all of those who supported me emotionally and financially to study at IGSE.

IGSE embraced me as ‘one of them’ and I’d like to invite and embrace anyone who is interested in promoting English education in Korea to be a new member of IGSE. Come study with ‘us.’

1기의 IGSE 2년 생활 일지

2002년 가을학기

9월

2002/09/02 입학식

외국인 2명을 포함한 52명 입학생의 힘찬 출발.

2002/09/16 Nunan 박사 강연

IGSE의 자랑거리가 된 국내외 영어교육 전문가의 특강과 강연의 시작. '누난' 박사는 유명한 만큼 강연도 탁월!

10월

2002/10/21 도서관 개관

국내 최초의 영어교육 전문도서관의 개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뭉땅 다 읽으리라 결심해 봄.



12월

2002/12/09 Henry Widdowson 박사 초청 강연

국내외 영어교육 학계에서 유명한 학자들의 IGSE 강연은 계속되었다.



2002/12 종강파티

이사장님까지 참여하는 IGSE의 전통이 된 종강파티. 한 학기 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면서 웃고 떠들고 먹고 얘기하며 ...



2003년 봄학기

5월

2003/05/03 제1회 개교 기념

IGSE 첫돌. 첫 입학생으로 웬지 모를 책임감도 느끼게 되던 날.



2003/05/21 현대영어사 혁제원 방문

멋진 연수원과 동양 최대 규모라는 새한음반. 영어교육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음. '항수'의 정치용 시인의 생가 방문도 있었지.



6월

2003/06/20 종강 파티

벌써 1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치열했던 1년을 보내고 나니 감개가 무량.

7월

2003/07/25 2기 신입생 OT

우리에게도 후배가 생겼다! 학교가 좋아지려나. '후배분들, 여기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2003년 가을학기

9월

2003/09/26 AFELTA 국제학술대회

학교에서 치르는 두 번째 외부 학술 행사. 역시 IGSEan들의 애교심은 자원 봉사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성공적인 행사 진행!

10월

2003/10/10~20 개교 1주년 기념학술대회

작은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날 동안 학술대회를 개최하다니 뿌듯. LMU의 Tomlinson 박사에게 미리 눈도장도 찍어둬.



2003/10 IGSE 충남학생회(?) 출범식

IGSE의 소수파인 남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1, 2기 남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임. 남학생들 힘냅시다. 화이팅~



11월

2003/11

가는 가을날을 아쉬워하며 우리는 반 별로 회화, 작문 선생님들과 함께 올림픽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1월

2004/01/04~21 영어교재개발학과 해외전공연수

리즈에서의 전공 연수, 요크 방문, 옥스포드 출판사 견학, 리버풀과 런던 등에서의 문화 체험... 다시 떠오르는 추억, 그리고 짧은 해가 아쉬웠던 시간.

2월

2004/02/04~20 영어지도학과 해외전공연수

IGSEan은 공부도 노는 것도 모두 열심... 수업 후 하와이 개척에 나선 학생들, 타잔들(?)



2004년 봄학기

5월

2004/05 논문 작품 중간 발표

“어제 한숨도 못 잤어,” “난 그지께부터 못 잤어...” 부은 눈을 간신히 뜨고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날.

6월

2004/06/09 출판사 편집자 강연

출판사에서 교재를 이렇게 치열하게 만드는구나 느낄 수 있었던 강연.

2004/06/20 공주 산림박물관 통나무집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의 MT. 그러나,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의 통나무집은 떠내려가지 않아요.”

8월

2004/08/25 졸업식

너무 기뻐서 날아 갈 것만 같을 줄 알았더니... 왜 자꾸 눈물이 날까? 어느 곁에 지나버린 2년과 그 동안 너무 깊이 정이 들어 버린 동기들,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와 도서관. 아쉽기도 시원 섭섭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시 돌아가고픈 지난 2년이여!



덧붙여서

엄마들이 IGSEan으로 재학 중 태어난 아이들(규진, 병준, 유본, 은서, 주빈)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산학협동을 통한 영어 교재 개발



정영국
(영어교재개발학과 학과장)

영어교재가 영어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교재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는 아직 한참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한 가지 단적인 사실이 대학에서 영어 교재 개발을 전문적으로 탐구하는 학과가 극히 드물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런 학과를 세계적으로 단 두 군데 대학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그 두 대학은 본교와 영국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이다.

교재개발은 학문적인 이해와 아울러 실제적인 경험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이다. 학문적으로는 교재개발 과정과 평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영어 교수 방법 및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기존의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교재를 통해서 학습했을 때 거둘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본교 영어교재개발학과에서는 이런 필요성에 입각해서 교육과정이 이론과 실재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좋은 교재개발에는 학문적인 배경지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재를 만들어 본 경험도 중요한 몫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재개발에 관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공부와 관련된 실무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교재를 개발해 보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본교에서 진행 하고 있는 한 가지 프로젝트가 중국 교과서 개발 작업이다. 본교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EEC Korea(이하 EEC)와 산학협동으로 <중국 중학교 영어 교과서 개발 연구>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는데, 이 과제는 금년 말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본 연구 과제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EEC에서 한국 상황에 맞춰서 개발한 다양한 영어 학습 교재들을 토대로 중국의 현행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중국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 중 근간이 되는 교재는 현대영어사가 제 7차 교육 과정에 따라 편찬한 한국 중학교 영어 교과서이다.

EEC에서는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 중국의 영어 교재개발에 관여해 왔는데, 현재 EEC에서 개발한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중국 중앙 정부의 검인정 과정을 거쳐서 중국 초등학교 들에서 영어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연계해서 사용할 중학교용 영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작업을 본교가 산학협동으로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중국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그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교육과정에 부합하게 교과서의 전체 체제를 구성하고 표본 원고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단계의 결과물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집필하는 단계이다.

● 중국 교육과정 및 기존 교재 분석

중국의 현행 교육과정 분석을 위해서는 중국 교육과정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검토 하면서 국내 교육과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존 국내 교재의 재활용 방안과 교재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국내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교육과정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학기별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언어 기능은 학년별로 정하지만, 그 외의 내용들은 중학교 전 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할 성취기준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전국적으로 지역 차가 큰 점을 감안해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학기별 학습 내용을 편성하되, 궁극적인 도달점은 동일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자가 집필 과정에서 많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잇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만큼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나 책무도 크다고 하겠다.

다음은 학제상의 차이점이다. 우선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매년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교과서에서 다루는 소재들을 기존 순서대로 제시하게 되면 계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나온다. 예를 들어, 국내 교과서에서는 새 학년의 신학기가 봄인데, 중국에서는 가을이다. 그러므로 이에 맞추어서 내용이나 소재를 재구성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수업 시수에서도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영어 수업 시수가 중학교 1, 2학년은 3시간, 3학년은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최소 4시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당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영어 수업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학기당 별권의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학교용 교과서가 총 6권이 필요한 것도 한국과 다른 점이다.

제 1 분석 단계에서 교육과정을 분석한 다음에는 기존의 중국 교과서를 분석했다. 중국은 교과서 검정제도에서 수시 검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교과서가 국가의 검정을 통과하기 전에도 먼저 실험본을 만들어서 일정한 지역 내의 학교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게 한 후 추가 수정을 통해 정본을 확정 개발해서 검정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본교에서는 중국의 타 출판사들에서 이미 개발한 실험본 및 정본 영어 교과서들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교과서의 특성과 개발 방향을 확정했다. 이 과정을 통해 현행 중국 교과서들이 출판사에 따라 내용 구성이나 접근 방식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내용 구성 체제 및 표본 원고 개발

이 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교과서의 내용 구성 체제 (framework)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표본 원고를 집필해야 했다. 교재개발에서 내용 구성 체제는 집을 지을 때의 설계도에 해당한다. 본 교과서 개발 작업에서 내용 구성 체제 확립 과정의 주요 내용은, 교과서 6권 전체에 걸쳐서 다루게 될 글의 소재, 의사소통기능, 문법 및 발음 등을 선정해서 각 권별, 단원별로 목록화해서 배치하는 것이었다. 내용 구성 체제는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하되, 이를 각 학기의 학습 목표와 학습량에 따라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확립된 내용 구성 체제에 따라 한 단원의 표본 원고를 작성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내용 구성 체제와 표본 원고는 중국 측의 자문위원들과 회의 및 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통해 수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 형태가 완성되었다. 내용 구성 체제의 개발과 표본 원고 집필에는 교재개발학과 졸업 예정자 3명이 참여하여 졸업 작품의 일환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 교과서 개발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인원 구성은 대학원생들 중에서 참여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조직했다. 참여 인원은 총 25명이었다. 본 연구 과제에서 개발해야 할 교과서가 총 6책이므로 각 조별로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된 6개조를 편성하였다. 각 조는 교과서의 구성 체제와 표본 원고를 기반으로 하여 한 학기용 교과서 1책과 이에 따른 부속 교재(교사용 지도서, 학습장(workbook))를 개발하게 되었다.

교과서 개발에서는 가능한 한 중국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고자 했다. 교사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교실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학습 내용 및 활동을 구성하고자 했다. 개발자들은 중국이 지리적으로는 이웃해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와 유사성 못지않게 차이점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매 학년용 첫 과에서 새로 만난 반 친구들이 새 담임교사와 서로 인사를 나누는 내용을 종종 다룬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학교 3년 동안 내내 1학년 때 편성된 반이 그대로 유지되며, 담임교사도 그대로라고 한다. 그러니 중국 학생용 교과서는 매 학년 첫 과를 한국 교과서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실을 대화문에서 형제자매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룰 수가 없었다. 중국은 아직 인구 정책상 한 가정에 한 자녀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이 거의 없으므로 그런 내용을 다루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재에서 이처럼 한국과 다른 중국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 중에 중국의 자문위원(교수 및 현직 교사들로 구성)들 및 EEC China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 매 단원의 초고가 준비될 때마다 중국에 보내서 검증 과정을 거치다시피 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하면서 이처럼 지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메일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중국의 교과서 편찬 업무는 교과서 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출판사들이 자사 교과서를 채택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교육을 실시한다. EEC와 본교에서도 본교가 개발한 교과서를 금년 9월 신학기부터 사용하는 학교의 영어 교사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지난 8월에 중국에서 실시한 바 있다. 3일 간에 걸친 교사교육을 위해 본교에서는 교과서 개발 작업에 참여한 개발자 및 교수들이 연수에 참여했고, 그 외 미국 및 중국 현지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서 약 25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 마무리

본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국 교과서 개발 연구 과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했다. 본 과제는 산학협동을 통한 교재 개발 작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 본 좋은 경험이었다. 또한 교재개발에 관심이 있거나 이것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 나아가서 앞으로 제반 영어교육 및 교재개발 관련 과제들을 통해 그 동안 한국이 교육 현장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가르치며 쌓아온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본 기회이기도 했다.

영어 교재 시장의 현황과 전망

김민기 (두앤비컨텐츠 대표)

IGSE : 현재의 출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김민기 : 경제 불황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분야가 출판 시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 위축되고,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할 때는 가장 나중에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모든 출판업계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불황의 영향뿐만 아니라, 변화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 국민이 인터넷을 쓰기 시작했고, 좋아하는 것, 읽고 싶은 것, 그리고 정보를 얻는 방식이 급변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책을 개발하기 시작한 출판사들은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확실히 줄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독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일 것이다.

IGSE : 영어 교재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김민기 : 현재 국내 단행본 영어 교재 시장을 살펴볼 때, 50%가 토익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학원 교재 중심에서 대표 브랜드 중심으로 토익 교재 시장을 상승시킨 효과 때문이라고 본다. 나머지 50%는 영어 회화, 문법, 어휘 등의 교재인데, 이 시장을 이루고 있는 소비자는 소수의 중고급자와 특정 책을 사는 초급자 등 결집력이 없는 독자들이다. 이 중 10%만이 살아남는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다.

교보문고 베스트 100을 보면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는 단행본 영어 교재의 중간 허리층이 두터워진 것을 볼 수 있다. 기획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알차고 좋은 책을 찾는 독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콘텐츠의 질도 많이 달라졌는데, 과거에 한국에서만 통용되던 문법 위주의 책에서 지금은 원어민들이 실제 쓰는 영어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

IGSE : 영어 교재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

김민기 : 영어 교육 시장은 가만히 놓아두어도 몇 배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어떤 영어 교재가 존재하든 지 간에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영어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콘텐츠의 힘으로 시장의 잠재력을 10배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누구나 꼭 보아야 할 권장 교재란 것이 없지만, 앞으로 권장 교재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그것을 기초로 그에 버금가는 다른 교재들이 개발된다면 시장을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시장 개발의 가능성은 우리 나라 학습자의 성향과 학습 방법에 맞는 교재를 기획·편집하는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 현지에서 제작된 ELT 교재는 믿을 만한 영어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내 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제작된 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내 제작 교재가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ELT 교재를 국내에 들여와 국내 독자에 맞추어 재편집하고, 포지셔닝(positioning)을 해주면 새로운 시장이 개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외국 출판사도 소수의 우수한 편집 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출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국내 출판사가 외국 출판사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콘텐츠의 질, 구성 및 학습방법의 참신성을 갖춘 교재를 개발하는 데 있다.

영어 실용서를 출판하는 두앤비컨텐츠의 김민기 대표를 본교 창업 동아리인 IGSE Challengers가 만나 영어교재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들어 보았다. - 편집자 주

엄마가 가르치는 유아영어교재



정영애 (영어교재개발학과 2기)

우리나라에서 유아가 영어를 접하는 방법은 영어 유치원을 포함한 학원 교육, 방문 학습지 교육,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 교습, 학부모 스스로 선택하여 보여주고 들려주는 영어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와 영어 동화책, 영어게임기 등 다양하다. 이 외에도 각 학원마다, 회사마다, 개인교사마다 사용하는 코스북, 참고서적, 교구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교재 중에서 유아영어교재에서 눈에 띄는 한 종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엄마가 가르치는 유아영어교재’이다. ‘엄마가 가르치는 유아영어교재’란 ‘영어나 영어교육에 대해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교재 내용을 따라 함으로써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재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해 일반인이 무엇을 궁금해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방법으로 조기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교보문고, 영풍문고의 서가 및 인터넷 검색, 그리고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을 이용한 자료 검색을 통해 총 74권의 교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교재가 출판된 연도에 따라 살펴볼 때 1996년까지는 이와 같은 종류의 책으로 국내 출판물은 없었고 일부 외국 저자의 번역출판물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7년부터 한국인 저자들의 활발한 출판이 시작되더니, 2000년과 2001년에 많은 책이 출판되었고 현재까지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엄마가 가르치는 유아영어교재’의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조기영어교육 안내서와 직접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활용서가 고르게 출판되었고, 최근에는 카세트 테이프나 오디오 CD 또는 그림카드와 같은 부록을 포함하는 책이 많이 출판되었다.

조기영어교육 안내서란 조기영어교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설명한 교재로 경험을 근거로 글을 쓴 저자와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글을 쓴 저자간에 내용이 약간씩 달랐다. 경험을 기초로 하여 글을 쓴 경우, 대부분 강조하는 내용이 영어 환경 조성이다.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부모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교재를 활용하여 영어 환경을 제공하고, 영어 놀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 주면 어린아이라도 영어를 즐겁고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어 학원 선택 요령, 영어 비디오, 영어 동화 등 기준에 나와 있는 교재 선택에 필요한 조건과 몇몇 교재의 실제 사용 사례와 대화문을 실은 책도 있었다. 최근에 출시된 책일수록 영어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보다는 영어 동화, 읽기 학습 방법 등 영어교육의 세부적인 영역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교재의 내용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기 안내서가, ‘나는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란 서술 형식을 보였다면, 최근 안내서의 경우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가르쳐라’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어교육을 전공한 저자들의 경우, 제시하는 유아영어교육 방법에서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았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뜨거운 영어교육 열기를 우려하여, '조기영어 너무 빨리 하지 마라'와 같이 영어를 가르칠 때 유의해야 하거나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쓴 교재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이완기 교수의 영어를 가르치는 엄마, 영어를 가르치는 엄마'의 경우,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조기영어교육의 시작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영어교육의 학문적 배경이나 영어교육 시기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아영어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쓴 저자와 마찬가지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 책도 많았다. 그 대상 연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용 대화문을 제시하며, 읽기와 듣기 등 여러 영역 활동을 고르게 설명한 책이 많았다.

영어교육 활용서는 교재 자체가 미니북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단어 또는 그림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 교구가 되는 교재이거나, 영어 놀이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경우이다.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정해 놓고, 그에 필요한 대화문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으며 대상 연령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듣기 위주, 노래 위주, 읽기 위주 등 세분화된 내용이 많았다.

엄마가 가르치는 유아영어교재를 저자의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영어강사 중심으로 그리고, 비전문가들의 경험서들이 주로 나왔고 후에 전문가들의 글이 나오면서 경험서도 다시 많이 출판되고 있었다.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공부법,' '엄마, 영어방송이 들려요!'

같은 책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기영어교육법의 안내와 그에 따른 실제적인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Let's Play 베이비. OK 맘,' 'Hello 베이비, Hi 맘'과 같이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대화를 안내하고 있는 책도 있다. 그리고 영어교육 분야에서 공부한 전문가보다는

엄마가 가르치는 유아영어교재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출판되고 있다

자녀의 영어교육법으로 유명한 저자들의 책이 더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엄마가 가르치는 유아영어교재를 살펴보면서 교재들이 지닌 장단점을 볼 수 있었다. 각 교재마다 소개하는 영어교육 활동은 대체적으로 유아의 흥미를 끌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교육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영어 활동을 소개하거나 그 책을 마친 후 지속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제시나 대안을 주지 않아 영어교육을 연계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개별적인 유아의 영어수준이나 능력을 판단하고 적절한 영어수준과 내용으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유아가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영어를 배워나갈텐데 교재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영어교육 활동 지침이 책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부족하고, 영어 지시문의 나열이나 한글로 된 간단한 소개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엄마가 가르치는 유아영어교재'가 유아영어교육 열풍에 따른 일시적인 인기 교재 영역인지 앞으로 계속 발전될 가능성을 지닌 영역인지 그 판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교재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교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유아영어교육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EFL 영어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유아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다.

새로운 영어교사 연수기관의 설립을 제안한다

머릿말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한 지 이미 한 세기를 넘어섰다. 특히 해방 이후, 우리는 7차에 걸쳐 영어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 이해력 신장을 목표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제 6차)도 시험해 보았고, 현재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제 7차)을 제정하여, 새로운 교재와 교수 방법으로 영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7학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함으로써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교육의 질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이 획기적으로 신장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적 투자를 감안한다면 우리의 희망찬 기대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기대는 실망을 지나 좌절에 가깝다고 직언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얼마 전 MBC TV에서 우리 영어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다. 공교육에서 시행하는 영어교육의 체제와 교수·학습 방법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프로그램이었다.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켜 영어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육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얽혀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교과서 또는 교재로 요약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인은 영어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역사적 상황(context)을 전제로 한다.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서로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 이 글은 영어교육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교사 요인, 학습자 요인, 그리고 교과서 요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서로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 이 글은 영어교육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교사 요인, 학습자 요인, 그리고 교과서 요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교육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1) 학습자 요인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나 태도는 다른 어느 나라의 학생들보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단일 국가 안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통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요인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교과서 또는 교재 요인

교과서는 교사의 교수 방법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 주는 물리적 도구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언어 습득의 이론과 실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행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해
영어 교사의 자질 함양이 중요하다**

초·중·고등학교의 검정 교과서들은 과업,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사소통기능과 문장의 형식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찬되어 있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저해할 수 있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하는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교사용 지침서」를 활용하여 소규모 집단 활동(group work)의 장점을 살려 과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집필되어 있다. 하기는 교사가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수업 보조 자료(CD, 컴퓨터 등 멀티미디어 학습 보조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어 수업이 교사와 학생, 학생들 개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면 학습 보조 자료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 요인과 교과서 요인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이지, 일차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교사나 학교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영어교육에 대한 역사적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역사적 상황과 교사 요인

영어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황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우리 사회에서 영어 사용 능력이 지니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중요성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떠한 분야에서건 영어의 필요성과 영어 학습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나라 영어교육에 대한 상황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는 교육 체제상의 상황이다. 학교에서 영어는 언제나 중요한 과목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수 단위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급의 인원수는 여전히 많고, 주당 영어 시간도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수업 환경 속에서도 영어 교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대학 입학의 전형 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의 출제 경향은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교수 방법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상 유래가 없었던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암기 위주의 문항이 사라지고, 다양한 독해 기술과 책략을 요구하는 읽기 평가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러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음성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현실적인 교수법의 모색이 필요해졌으며,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독해지도법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셋째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것이다. 현재 중등학교의 영어 교사들은 대부분이 학생 시절에 문법-번역 중심이거나 제 4차나 제 5차의 교육과정에 근거를 둔 청화식 교수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영어를 익혀온 분들이다. 물론 이 교사들 대부분이 자격 연수나 직무 연수를 통하여 새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교육이론과 교수방법에 대한 재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전통적인 문법-번역의 교수법이 여전히하고, 청화식 교수법에 의한 수업을 진행하는 전통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영어교수법에 관해서 한마디 언급을 추가한다면 제 6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분명히 Krashen과 Terrell이 주장하는 「자연적 접근법」(Natural Approach)의 습득 이론과 교



김임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전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장)

수 방법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제 6차 교육과정은 이해 기능(듣기와 읽기)을 반드시 표현 기능(말하기와 쓰기)에 선행하여 가르치도록 하였다. 한편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의 4 기능을 과업이나 활동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는 과업 중심의 소규모 활동을 통하여 의사소통 교수법을 교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이렇게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새로운 교수법과 교수이론을 반영하면서 변모해 가는 데도, 영어수업의 현장에서 전통적인 교수방법이 수업 진행 기술(technique)의 방편으로 여전히 쓰이고 있다면 이러한 관행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는 것이 우리 나라 영어교육 문제점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다.

하나의 해결 방안 : 영어교사 연수원의 설립

위에서 언급한 바, 영어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 체제상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황이 갖고 있는 제반 요인들은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이해 기능보다는 표현 기능에 더 많은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 현금의 영어교육이다. 영어교육은 면대면 대화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집단 활동에 의한 협력 학습이 아주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사례가 우리의 이웃 나라에서 발표되고 있다. 영어교수방법의 변화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빨라졌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 균등한 비중을 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어 수업에서는 한국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반향은 참으로 긍정적이며 또 절실하다.

변화를 추구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말할 것 없이 교사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어로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영어 사용 능력과 우리 실정에 맞는 교수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 관점에서 필자는 영어교사들을 위한 「영어교사 연수원(가칭)」이란 기관을 시, 도 교육청별로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수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체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예를 들어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 안산 영어 마을」처럼 영어 마을(English Village)과 같은 설비나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 (2) 1학기제 또 2학기제로 운영한다.
- (3) (여기서 자세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짜도록 한다.
- (4) 교사들이 중지를 모아서 우리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감안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도서관 소장 도서 안내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IGSE) 도서관은 영어교육 전문 도서관으로 2004년 10월말 현재 14,160점(복본 포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서관은 '영어교육 정보 서비스 센터'라는 기치 아래 영어교육으로 특화된 도서 및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및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구(Teaching Aids)는 234점으로 포스터, 차트, 플래시 카드, 게임 책, 그리고 퍼즐과 같은 수업 활용 자료 및 도서입니다.

수업용 교재(Coursebooks)에는 주로 시리즈 형태의 외국 교재들이 1,255점이 있습니다. 교재의 발행연도는 2004년부터 거슬러 올라가 1965년에 발행된 교재도 있습니다. 80여 개의 출판사 교재를 갖고 있습니다만 대형 출판사의 교재가 많은 편입니다.

교재전시실(Exhibition of English Resources)에서 국내 영어 교과서 및 학습 교재 1,689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주를 이루지만, 학습 교재인 경우에는 유아, 초등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학(Literature)은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과 1990년에 출간된, 고전을 쉽게 개작한 수준별 시리즈 교재가 많은 편입니다.

비도서자료(Multimedia Materials)는 카세트 테이프, CD-ROM, DVD를 포괄하는 항목으로 도서의 부록으로 있는 자료나 독립적인 자료를 다 포함합니다. 2,000여 점이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서(Other Collection)에는 영어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도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도서관학, 한국어, 언어, 역사 및 문화, 출판·편집과 같은 분야의 도서입니다.

연속간행물(Periodical)은 본교 도서관이 자랑하는 영어교육 전문학술지 모음입니다. 국내 학술지 14종, 해외 학술지 34종을 포함하여 총 1,700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교에서는 국내 영어교육 관련 논문 및 자료에 대한 서지 정보를 담은 영어교육 문헌DB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집(English Language Teaching Resources)은 영어 교수 및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모아놓은 항목입니다. 주로 외국 출판사의 교재가 많은 편이고, 1990년대 후반 이후의 교재가 많습니다.

참고 도서(Reference Books)는 주로 사전류의 도서들이 있는 항목인데 본 도서관에서는 영어 관련 사전을 모두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800여 점이 있습니다.

연구서(Linguistics/Language Teaching)는 2,353점의 영어교육 및 언어학, 교육학 등의 이론서가 있는 항목입니다. 영어교육이 여러 분야의 연구 성과가 응용되어 적용되는 만큼 영어교육과 관련되는 이론서를 선별,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IGSE 도서관은 영어교육 전문 도서관으로서 영어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적극 이용하기를 권하며, 소장했으면 하는 도서나 자료가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사용 문의 및 도서 구입 신청
(전화: 02)6476-5201, 이메일: gompoohj@igse.ac.kr



C O L L E G E F A C U L T Y C O L U M N



David D. I. Kim
(Dept. of ELT Materials Development)

A few years ago I was asked to write an article for a university news magazine, and told I had free rein in choosing a subject. It was a quite a privilege, but unfortunately, circumstances were such that I was unable to oblige at that time. Since then, I had, from time to time, been giving thought to what I would have written to the audience of the news magazine, the university students. Fortuitously, I have been provided another opportunity to address an audience of promising scholar-apprentices.

Some thoughts I had been mulling over has been connected to the question, “How did I come to be where I am at this moment in my life?” More specifically, what influences had motivated the choices I had made in selecting a life path of a researcher/scholar.

As I reflected back upon my past schooling experiences, I recalled the excitement surrounding my initiation into the fraternity of the university community. Fresh out of high school, like any average first-year undergraduate, I had a general sense of my future and what I wanted from life, which involved graduating, securing a satisfying job, getting married, having children, etc.

My tenure at university can be described as a time of exploration and discovery. I was fortunate to have been exposed to the breadth and depth of the accumulated body of knowledge of the ages, from the perspective of a wide range of disciplines. Also, I had the fortunate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knowledgeable experts and renown scholars in various fields of study. Further, I was being inculcated in the ways of independent and critical thinkers, and afforded opportunities to exercise in the art of discussion and debate with fellow students, my colleagues, exchanging our thoughts and ideas. An affinity towards these experiences had led me to consider scholarship as a possible career option. At that time, I had not yet focused my pursuit, but simply for a desire to continue with study.

In the final year of my undergraduate program, one particular incident brought sharp focus and clarity to my studies. While completing an investigative report of the Korean immigrants’ life-experiences in Canada, I came to interview a number of Korean-Canadians to their thoughts and feeling of their experiences of an immigrant’s life in Canada.

A Spark to a Flame: Experiences of a Researcher/Scholar

In all honesty, I did not expect the interviews to reveal much more than what I had come to know from my own experiences as an immigrant, and I approached the exercise to be one of simply collecting confirming bits of information for my report. Needless to say, such was not the case. The entire process was an eye-opening experience to the wide and varied reality of Korean-Canadians in Canada. From that moment, I came to an entirely new appreciation for the need to conduct research, as well as,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subtle, yet powerful, impact of the cultural influences upon social perspectives. The incident fueled and propelled my desire to further study and research.

The epiphanous sparks from my undergraduate experiences eventually led me to continue my studies overseas, in Korea. While apprenticing in the art of research, I continued to hone my skills in the use of the “tools of the trade,” as well as, participate in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Becoming involved in on-going research projects in the department (normally there were numerous simultaneous research projects being conducted at any given time), initiating and engaging in collaborative research with fellow students and researchers in other institutions, preparing for conference presentations, establishing academic networks, and writing up papers for professional publication, were but some of the scholarly activities that I engaged in. With every new challenge and activity fanning the ember of curiosity.

When I began my teaching career I had many opportunities to apply my learning and training to address language-learning questions that I encountered in my classroom. I naturally framed these language-learning questions into a form that was amiable to research. Driven by the excitement of contributing to the existing body of knowledge base in the ELT field, I produced research reports and papers to inform fellow educators of teaching issues in ELT. I also associated myself with professional teaching organizations, and enthusiastically participated in their events,

expanding my social and professional network. I even served my fellow educators by facilitating and organiz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Such was my academic life to this point. So I found myself pondering what remains from my time spent as an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 Quite evident is the erudition, the accumulated learning of knowledge from my field. But is that all? Reexamining my current research/scholarly activities, I realize there is more. My academic training involved the practice of thinking critically and analytically, and to effectively organize my thoughts and activities. My academic/research apprenticeship also involved honing problem-solving skills, exploring creative solutions to unique situations, as well as, seeking and uncovering/discovering necessary and relevant information. My research apprenticeship also involved the development of leadership skills, as well as social interaction skills in academic settings. Further, my apprentice training has served me well as I organize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such as participating in and organizing conferences and presentations, as well as, assisting in producing professional publications, and coordinating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and research groups. I have come to realize the value of professional development that promotes personal and professional growth, as well as, leading to a greater appreciation for the broader perspective to the educational context in which we are learning and teaching.

Most of all, I have come to realize that my early academic training and experiences had sparked interest in research and scholarship, that was fanned to an ember with each new experience during my academic apprenticeship in the art of research, and later ignited into a burning passion. As such, my hope is that as educators we can spark interest in our students, that one-day will ignite into a flaming passion for English education.



송자경
(수원 효성초등학교 교사, 영어지도학과 1기)

졸업 후 세 달째

2년 전 우연히 모 일간지에서 IGSE 신입생 광고를 보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갈 길이다' 라는 직감으로 휴직 허가를 받으려 학교와 교육청으로 뛰어다니던 일이 정말 엇그제 같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기에 고된 학업 과정에서 중도 하차도 못 하고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달렸던 지난 2년이였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졸업' 이라는 타이틀을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벌써 졸업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간다. 얼마 전, 인사발령통지서를 받기 위해 전임지를 방문했을 때 인사기록카드에 '영어학 석사' 라고 기재된 것을 보며 저 한 줄의 이력을 추가하기 위해 그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과 함께 뿌듯함이 교차했다. 요즘은 IGSE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을 확인할 때마다 '송자경 씨' 가 아닌 '송자경 선생' 이라 불림을 보고 '이제 정말 졸업을 했구나' 라고 실감하게 된다.

2년간 학교 현장을 떠나 있다가 다시 가르치는 입장으로 돌아온 지금, 여러 가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교무학사 업무가 언론에 자주 회자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처리되고 있고, 행정실에서 해주던 기안문서번호 따는 일도 직접 내가 해야 한다. 더군다나 새로운 학교에, 그것도 후학기(9월)에 복직했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에 적응해야 하는 일도 적잖다.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들을 나는 이리저리 물어보고 처리해야 하는 신규 아닌 신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늘상 나만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교직원 분들이 내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친목행사 때나 전임교사를 소개하는 학교방송에서 교감 선생님께서 "송자경 선생님은 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셔서 영어를 아주 잘 하십니다"라고 소개하셨기 때문이다. 대학원 공부를 위해 휴직을 할 수도 있느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라는 학교가 어디에 있느냐, 영어를 잘 하는 비결이 뭐냐, 괜찮은 영어학원을 추천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다. 나도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도 있지만,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아는 한 열심히 설명한다. 특히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가 어떤 곳이냐라는 질문에는 더 열심이다.



새로 발령받은 학교에서는 4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영어교과는 전담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도록 1학기 때부터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칠 기회는 아직 없다. 학교 사정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침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전공을 썩힐 수는 없는 법! 모두가 알듯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가장 큰 비애는 영어 교과 시간 이외에는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영어 시간이 주당 한 차시(초등학생의 한 차시 수업은 40분이다)가 할당된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희박하다. 특히 학교 영어교육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의 경우, 영어에 노출될 기회는 더더욱 없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고자 학교에서 하루 일과를 학급의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위치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요일에서 금요일 아침 자습 시간을 이용하여 15-20분 정도 간단한 영어 표현을 가르치거나,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영어노래, 챗트, 알파벳 등을 가르치고 있다. 잠깐씩이라도 꾸준히 자주 영어를 접하다 보면 영어 사용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낮아지고 친숙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날 배웠던 내용을 다음날 누가적으로 반복한 후 새로운 표현들을 지도하는데, 이는 학습내용을 오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나 간단한 지시문을 말할 때는 TPR(Total Physical Response)을 응용하여 째째이 영어로 말하는 전략도 활용한다. 이제 학생들이, “Clap your hands three/five/eleven times,” “Put your hands on your head/shoulders/knees/toes” 등의 지시어는 부담 없이 알아듣고 행동으로 반응한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막무가내로 영어 사용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를 가르치기 이전에 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하는 지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 교육을 병행한다. 요즘 한창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라던가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이 단골로 인용되는 예들이다. 그러면 비록 11살의 어린 학생들이지만, 애국심이 불끈 솟아 보인다. 그리고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의 필요성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다.

졸업생 중의 누군가가 말했듯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제시된 교육과정을 따라 하라는 공부를 하면 되었지만, 졸업한 후에는 스스로 앞으로의 계획을 짜고 실천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 단순히 가르치는 기계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영어교육 관련 전공서적을 탐독하며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영어구사능력을 기르기 위해 본인의 어학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영어교육자로 남길 바라며 지금은 IGSE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인 듯싶다.



이진영
(쓱쓱닷컴, 영어교재개발학과 1기)

영어교육의 이론, 그리고 실제

2년 전 사회생활을 일단 접고 다시 대학원 문을 두드렸을 때, 새로 시작하는 학교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새로 시작될 나의 커리어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에 와서 처음 시작하는 영어교육 공부,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온 친구들,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 나와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에서의 첫 학기에는 유난히 발표 수업이 많았다. 그 중 생각나는 발표 수업은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것이었다. 영어교육에 대한 이론이 없이 뛰어난 실재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것'과 똑같은 대목에서 '코끼리가 장님을 더듬는다'라고 말이 헛나와서 본의 아니게 동기생들을 웃게 했던 기억이 난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에서 영어교육에 관한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영어교육의 이론을 배웠고, 졸업과제 준비와 학기 중 틈틈이 어린이 영어학원에서의 영어 지도 경험을 통하여 실제도 경험했다고 생각했지만 영어교육 시장은 만만치 않은 영어교육의 실제인 것 같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있는 회사라서 영어교육 이외에 인터넷 관련 업무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트 개발 및 운영과 영어교육 콘텐츠에 관련된 기획업무가 필수 업무로 들어 간다. 굳이 인터넷 회사가 아닌 종이 교재를 개발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기획업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기획력을 가지려면 우선은 영어교육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플래시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를 몇 번 더 따라 했느냐보다 플래시로 만들어진 수많은 인터넷 영어 교재를 보고 어떤 것이 더 좋고 시장에서 가치가 있을 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에서는 3학기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야로 나누어져 졸업작품을 시작했다. 그때 나는 온라인 분야를 선택했고, 플래시 영어교육용 게임을 동기생 1명과 함께 공동 졸업작품으로 제출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플래시 영어교육용 게임 기획 단계에서 했던 영어교육용 게임 회사에 관련된 시장조사나 흐름 파악 과정 등이 취업 후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컴퓨터를 이용해 그럴듯한 작품 하나 만드는 것 보다는 기획단계에서 영어교육 시장의 흐름 파악이나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영어교육 시장에서 가치 있는 교재 선정 및 기획 능력이 학교 교과 과정에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어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학부모들과 영어교육을 전공하지 않고 영어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 그리고 회사 상사를 설득하여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영어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영어교육 시장에 대한 경험)가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하고, 대학원 2년 과정에서 그 두 가지를 충분히 경험해야지만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나는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2년 동안 영어교재개발학과라는 것의 정체성에 대하여 참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다.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영어교재개발학과의 정체성은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체가 잘 어우러질 때 발견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한 지 몇 개월이 되었다. 사회 생활이란 게 쉽지 않은 않지만,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2년간 동기들과 함께 경험했던 순간순간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순간순간을 알차게 엮어갈 것이다.





문은경 (영어교재개발학과 2기)

IGSE와 함께 한 1년, 그리고 함께 할 미래

요즘의 우스개 소리 중에 70~80년대 유행했던 썰렁한 개그를 일컫는 말로 “노후 개그”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입학했다”라는 말이다. 나 역시 이 개그에 해당되는 80년대 후반 학번의 영어영문학과 출신이다. 그 당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너는 여자니까 영문과가 좋겠다’는 권유를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학했던 것이다. 사실 영어와 나의 인연을 치면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초등학교 3학년 초에 아버지를 따라 이란이라는 나라에 가서 외국인에게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니까 상당히 오래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영어학습에 관한 설문을 작성할 때마다 “영어를 처음 접한 후 지금까지 공부한 기간을 쓰시오”라는 항목에 “26년”이라고 쓰면서 민망해지는 이유는 그 세월만큼의 영어실력을 그 동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시 영문을 모르는 채 영문과를 졸업했던 나는 걸스카우트 국제부에서 7년 가량, 벤처 기업에서 3년 가량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영어회화 학원을 다니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별 효과 없는 영어 학습 방법과 나 자신 그리고 같이 학원을 다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다.

2003년 가을 IGSE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은 내가 영어에 관한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되었다. 1학기 종강 파티 때 총장님께서 학생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지난 한 학기의 학교생활이 어땠느냐고 물어보실 때 나는 “제가 학부 4년 동안 이렇게 공부했다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대답해서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든 적이 있다. 나는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영어학습과 교수방법에 관해 그토록 심도 있게 생각하고 토론해보면서, 그리고 실제 교재를 분석 및 제작 하면서 영어교재와 영어학습의 관계를 고민했던 시간들은 정말로 영어에 관한 내 인생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IGSE에만 있는 독특한 영어 스킬 과목들도 이론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스타일을 접목한 체계적인 영어 글쓰기와 한국인의 발음체계를 고려한 영어 발음 수업 등은 어느 곳에서도 받기 어려운 강의였다고 생각된다.

2학년에 접어드는 여름방학 때부터는 논문 준비와 병행하여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충남 연기군의 교과서박물관에서 복사한 40~50년대 영어 교과서들에 적혀있는 그 당시 학생들의 메모와 낙서들을



보면서 그 학구열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기도 했고,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과거의 문헌들과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감탄을 하기도 하고 자료 보존이 안되어 있어 가슴이 아팠던 적도 많다. 최근에는 재야에서 평생 젊음을 바쳐 英學史를 연구해 오신 분께 인터뷰 요청을 위해 전화를 드린 일이 있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뷰를 극구 사양하셨지만,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그 분의 열정이 느껴져서 코끝이 찡해졌다. 그분은 학계에서 활동하지는 않으셨지만, 개화기 때 우리 선조들이 영어를 배워 온 발자취를 더듬어가기 위해 전국의 도서관과 문헌들을 찾아다니셨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 기관들의 폐쇄적인 태도에 분노도 많이 느끼셨다고 한다. 그분은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1979년부터 1980년에 걸쳐 어느 영어 월간지에 연재를 하셨는데, 그마저도 1980년 언론통폐합 때 그 잡지가 폐간되면서 연재가 중단되게 되었다. 그 잡지들의 많은 부분이 현재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존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 나는 IGSE에서 열정을 다시 배우고 있다. 앞으로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여, 내가 받은 이 혜택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일에 노력하고 싶다. 실용적인 영어교육을 추구하는 IGSE의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의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비단 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번 학기 초에는 IGSE에서 양성되는 영어교육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제대로 된 영어교육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학교기업 설립을 학교와 학우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IGSE에서 양성된 훌륭한 인력들이 창의와 자발적 헌신으로 영어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라 생각한다. 시작은 IGSE Challengers라는 조그만 창업 동아리지만 나중은 의미 있는 기업으로 육성되리라 믿는다. 느리더라도 아주 힘있게!

Another Self



Sujeong Song
(Dep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Looking out through the dusty window, she was waiting for the bus to start off. Five fifty-nine, Saturday morning. The bus would move in a minute when the ticket collector got off.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departure, she reclined her seat all the way back downward and closed her eyes. She didn't get a decent sleep for several nights preparing for Monday's meeting.

"Get the complete picture! You know how important this meeting is. It isn't too much to say that the future of our company is up to you. Get prepared perfectly that you never ever make any single mistake! If we don't win the contract, then all of us..."

The desperate voice of her boss lingered on in her mind, making her feel uneasy about coming down to see K. Assuming heavy responsibility, she hesitated awhile about whether to come see him or not although she had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day. His call to confirm her coming the night before, however, made her hesitation disappear. And now, she was on the bus.

Since she was transferred to the Seoul branch about one and a half years ago, she hadn't seen K very often. Her work didn't allow her much time to see him. The last time she met him was already seven months ago. Before then, they had seen each other every other weekend. She came down on one weekend; he came up on another. Sometimes, they met somewhere in between, as they would do this time, too.

Her eyes flew open at the familiar melody. "Love 2" of the YB Band was streaming out of the radio. She liked the deep, husky voice of the singer. She hummed quietly to herself not to disturb other passengers in their sleep. "Love 2" was not just one of those songs. It meant something to her.

Back in her hometown six years ago, she was browsing around a record shop to buy a CD for her sister, whose birthday was just two days away. She tried listening to several CDs, but couldn't choose one. Because her sister had quite different tastes from her own, it was not easy to choose one from those many. Anyway, she could barely narrow down the CDs to two: One, her favorite but not her sister's; the other, nobody's favorite but the most popular at the time. After a good half-an-hour struggle, she finally brought them to the counter to ask the clerk to help choose between the two. Smiling gently, he chose her favorite, saying he loved "Love 2" in it. To her surprise, his choice was for the very same reason as hers. She smiled in return for his kindness. They met this way: as a customer and the clerk.

The music signaled that the bus was entering a service area halfway to their meeting place and another announcement informed the passengers of a 15-

minute recess there. She got off to get some fresh coffee. At the coffee stand, she wondered how come at this hour there were a lot more people than she expected. "Ah, Saturday!" she murmured. She seemed to have to stand in line for the whole break. As she stood, her mind was wandering back into the record shop.

The clerk was working part-time for his school tuition. He was just discharged from the army and was getting ready for his return to school. He would be a senior majoring in law. She came to know all these on her second visit to the shop, not alone that time but with one of her best friends. When she went into the shop, he recognized her and nodded slightly. Her friend noticed it and asked if she knew him. She didn't want to answer, but then he approached them and handed a pen over to her. Though puzzled a little while, she soon realized that the pen was hers.

"Say... the other day, you bought a CD of the YB Band, didn't you? Then, you left this on the counter after writing a card."

"Oh, did I? I didn't know that. Thanks!"

"No problem."

Their talk was short, but her friend sensed something unusual between them. All of a sudden, her friend went over to the counter and talk to him for some time. After some exchanges, her friend came back with little secrets about him: his name, his current status, his school, and the like.

A light drizzle made her pick up her pace as she crossed the parking lot back to the bus. People scurried to their seats, and she was also getting back onto the bus, holding a paper cup of fresh coffee. The pleasant aroma of the fresh coffee was permeating all over the bus, along with the drip of the rain. If she had been asked to name her two favorite things, she would have said without hesitation, "coffee and the rain." On the day she was coming to him, she had both of them at the same time.

Author's Note

On a winter afternoon last year, I was traveling home by bus to celebrate New Year's Day with my family. On the bus, I happened to have a seat next to an old gentleman. Throughout the three-hour-long trip to Jeon-ju, my hometown, the gentleman spoke to me as if he had been talking to his own daughter or granddaughter. He had many interesting stories to say, and I listened to them with interest. I liked most of his stories a lot, especially the story about his girlfriend he met in his early 60s (when I met him, he was in his mid 70s). It was very

exceptional that an old man told his private stories to a total stranger like me. Anyway, I was so touched by his romance, and felt like writing a story someday.

I wrote my story about four months after I met the gentleman. However, my story is not what I heard from him. This is mostly fictitious, and only part of it is based on my own experience.

I thank that gentleman for inspiring me to write a short story. Without meeting him, I would never have dreamed of or challenged to write a story.



IGSE 강좌 소개 : 전산편집과 그래픽

- 마음을 꿰뚫어보는 흥미로운 시간들 -

영어교재개발학과

워드만 있으면 책을 만든다?

워드프로세서가 일반화되고 이들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좋아짐에 따라 어느 정도 숙련된 사용자라면 누구나 문서를 매끈하고 보기 좋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무자동화의 혁명은 출판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근래 들어 상업적 출판물 편집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해졌으며 그 결과물도 전문 편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만들어 낸 것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면 워드프로세서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책 편집을 잘 할 수 있을까?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전문성에 있다.

단순한 단편적 지식과는 다르게 책, 특히 학습 교재들은 독자가 내용을 정독 및 통독을 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종이 위에 인쇄로 표현한 형태가 읽기에 불편하다거나 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독자들은 혼란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 책을 덮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맛있어 보이지 않으면 먹을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글자 하나에 독자가 움직인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현재 워드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기본 체제를 보면 대체로 A4 용지 크기에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이며 행간은 글자 크기의 50%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러한

체제를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제로 되어 있는 출력물은 읽기에 적당한가? 워드프로 세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의구심을 한번쯤 가져 볼만도 하다.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인쇄매체와 모니터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찾고 확인하고 숙지해야 하는 현대인들의 눈은 항상 피로에 젖어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문자는 10.5포인트 정도로 조금 커야 하며, 행의 길이는 10cm, 행간은 70% 정도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글자의 폭은 약간 좁혀져야 하며 자간은 글자가 붙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밀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어려움 없이 문장을 신속하게 읽어 내고 또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문자 가독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책다운 책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지식만 갖춘다면 모든 출판물 편집이 가능할까? 이 또한 전혀 그렇지 못하다.

간행 목적이 특수한 학습 교재는 글자 하나하나, 또는 단어 하나하나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학습지에서는 오히려 글자의 변형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글자에 자간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간을 좁힘으로써 단어별 또는 문장 단위로 의미를 재빨리 파악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있다. 이러한 기준은 한글 사용에 능숙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이며 유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는 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들은 한글 해독이 늦고 단어의 의미 파악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글자는 진하고 커야 하며 철저하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형태로 글자가 배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글자는 어떠한 서체를 사용해야 하며 그 크기는 얼마나 되어야 할까. 또한 글자와 그림의 배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한다면 상업적 출판에서 그 성과는 ‘돈’으로 돌아온다. 실제 몇 년 전에 간행된 모 학습지는 그 내용이 충실한 이유도 있지만 학습자들이 눈에 피로를 느끼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원한 레이아웃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베스트셀러가 된 예도 있다.

함께 고민하면서 교재를 만들어 본다

이 정도의 설명으로도 우리가 흔히 보는 책에서 ‘문자’ 한 가지 요소만 놓고 볼 때 그리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출판물의 편집 레이아웃은 단순히 디자이너만의 몫이 아니다. 실제 책을 기획하고 내용을 저술하는 편집자와 저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기획 및 저술에 임했을 때 비로소 기획, 저술, 디자인의 3박자가 어우러져 팔리는 출판물, 오래 기억되는 출판물이 탄생하는 것이다. 특히 한글과 영어를 섞어 문제를 내고 설명해야 하는 영어 교재는 상황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영어 교재에 대한 독자 심리 분석과 그에 따른 편집 레이아웃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산편집과 그래픽’ 강의는 바로 이러한 영어 교재 독자 심리에 대해 지금까지 학습지 출판 현장에서 적당히 넘어왔던 문제들을 들춰내고 분석하고 고민해 보는 흥미로운 시간이다. 때로는 심리학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시도해 보면서, 또 때로는 시시각각 연구 결과들도 적용해 보기도 하면서 어떻게 글을 쓰고 만들어야 ‘팔리는 교재’가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학생 스스로 구체적인 편집 실습까지 해보게 된다.

학기 후반에 진행되는 편집 실습은 매킨토시 시스템과 PC에 탑재된 전문가용 편집 프로그램인 Quark-XPress를 사용하게 되며, 학생들 스스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이 기획하고 그에 따라 저술한 내용을 컴퓨터를 직접 사용하면서 실험적인 학습 교재를 만들게 된다.

이 강의를 위해 학생들이 준비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또한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도 없다. 다만 이 세상에 나온 영어 교재 가운데 왜 어떤 것은 잘 팔리고 어떤 것은 잘 안 팔리는지 궁금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

● 가을 학기 신입생 모집 및 오리엔테이션

2004년도 신입생 전형을 통해 영어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51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IGSE 3기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AGORA(IGSE Network) 사용법 및 도서관 이용 방법, 교수진과 교직원 소개, 수강 신청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1기, 2기 선배들이 마련한 신입생 환영회가 함께 이루어졌다.

● 문용 총장 및 교수 학생들, 중국 영어교사 연수 참석

지난 8월에 문용 총장과 정영국, 정현숙, 김영우, Thomas 교수, 그리고 송자경, 윤인섭 학생이 중국 하얼빈에서 있었던 중국 영어교사 연수에 참석하여 효과적인 영어 교재 사용에 대한 강의 및 시범 수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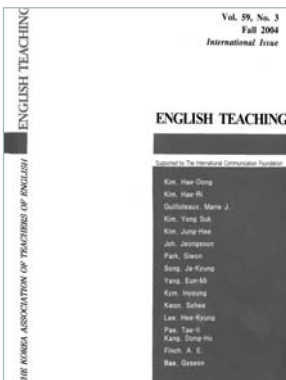
● IGSE 1회 졸업생 배출



'영어를 잘하는 영어교육 전문가'를 기르기 위해 많은 분들의 격려와 노력 속에 문용 연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가 2004년 8월 25일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문용 총장의 축사로 시작된 졸업식은 내빈, 학부모, 교직원, 후배들의 축하와 함께 영어지도학과 19명, 영어교재 개발학과 18명에게 학위 수여, 상장 및 상품 수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학생 학술 활동

1기 졸업생 5명의 석사 논문이 영어교육 제 59권 3호, 외국어교육 제 11권 3호에 실렸다. 이와 같은 학문적 성과는 본교를 영어교육계에 또 한 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 Kim, In-Young. (2004). English preference tendencies and English learning anxiety in primary school children. *English Teaching*, 59(3), 215-245.
2. Kim, Jung-Hee. (2004). Intensive or extensive listening for L2 beginners? *English Teaching*, 59(3), 93-114.
3. Kim, Tae-Eun. (2004). Teacher questioning and classroom interaction patterns in advanced EFL classe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3), 59-83.
4. Kwon, So-Hee. (2004). How to present new words: An empirical study & students' perception. *English Teaching*, 59(3), 247-269.
5. Song, Ja-Kyung. (2004). The effect of primary English model schools: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English learning. *English Teaching*, 59(3), 167-196.

● 월례 특강 및 강연

일시	종류	연사	주제
9월 8일	강연	박종원 교수 (천안대)	영어교육과 질적 연구
9월 20일	특강	박남식 교수 (서울대)	영어에서 볼 수 있는 환생과 보상의 현상
10월 8일	강연	Dr. Gary Barkuizen (Univ. of Auckland, New Zealand)	Resolving Tensions in Students' Willingness to Interact
10월 12일	특강	Dr. Craig Chaudron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The Context for Interaction: Needs, Input and Feedback in L2 Learning
10월 18일	특강	Dr. Michael McCarthy (University of Nottingham)	Lessons from the Analysis of "Chunks"
11월 1일	강연	이찬승 대표 (능률교육)	성공적인 영어 교재 개발자의 길
11월 5일	강연	김민기 대표 (두앤비컨텐츠)	영어교재의 전망

● 영어교육 전문가를 위한 IT 특강

본교 2004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2주간 하루 3시간씩 6회에 걸쳐 '이미지 자료 만들기 및 활용하기'를 주제로 IT 특강이 실시되었다. 특강은 최희선 IT조교의 알찬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영어교재개발학과를 중심으로 한 20명의 신입생들은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필요한 IT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도서관 문화에 IGSE 도서관 소개 기사 실려



본교 도서관에 대한 소개가 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하는 「도서관문화」 2004년 9월호에 실렸다. 기사에서는 탐방기 형식으로 영어교육 전문 도서관으로써 본교 도서관의 장서 및 시설 현황, 그리고 도서관의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다.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발전기금 조성



1기 졸업식 자리에서 문용 총장의 기탁금을 토대로 IGSE 발전기금 조성이 시작되었다. 본교에서는 효율적인 발전기금 운용을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였고, 발전기금 조성 계획을 널리 알리면서 기탁자들이 쉽게 기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인터넷 문의 및 접수 창구를 마련하였다.

English Today에 실린 IGSE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발간하는 *English Today*의 2004년 봄호 (20권 2호, pp. 40-46)에 'A Chapter of English Teaching in Korea(한국 영어교육의 새로운 장)'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를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한국영어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IGSE의 설립 목적

120년 전에 정식으로 시작된 한국의 영어교육은 1920년대부터 문법과 번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1990년대 접어들어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과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영어 열기는 대단하다. 영어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여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배출과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재의 제작이 절실했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는 바로 이런 절실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IGSE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전 학기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 장학금은 지난 20여 년간 독특한 영어교재의 제작과 독자적인 판매 전략으로 국내 유수한 기업체로 발전한 한 출판사가 그 동안 거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에서 마련한 것이다.

그 밖에 이 글에는 영어지도학과와 영어교재개발학과에 대한 소개와 교육과정 안내, 그리고 학교의 주요 시설이 소개되어 있다.



English Today는 어떤 학술지인가?

*English Today*는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매년 4회씩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로 창간된 지 20년이 넘는다. *English Today*란 제호와 *The International Review of the English Language*란 부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학술지는 오늘날 국제어 (또는 세계어)의 위상을 갖는 영어가 세계의 각지에서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고,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를 관찰, 분석, 설명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GSE는 2003년에 *English Today*의 편집장인 Tom McArthur 박사를 초청한 바 있는데, 이 글은 본교의 설립 내력과 목적 및 교과과정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McArthur 박사가 본교 소개의 글을 *English Today*에 게재할 의향을 전해움에 따라, 여러 교수의 의견을 수합해서 정영국 교수(영어교재개발학과 학과장)가 썼다.

A chapter of English teaching in Korea

YOUNG-KUK JEONG

THIS ACCOUNT of the growth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South Korea moves from the grammar-fixated traditions of the late 19th and earlier 20th centuries through more recent politically and educationally lively times to an English - and especially American English 'fever'. This urge towards English involves much of the nation and many kinds of schools and universities. In particular it contrasts school English with a

massive parallel realm of private tuition, and, more recently, the widespread individual use of audio-materials. More recently still it has led to the emergence of a novel private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founded and financed by a publisher who has himself been closely involved with the issue of how young Koreans can most effectively learn a language which much of the nation considers vital to the nation's future.

The national background

The English language started to be officially taught in Korea around 120 years ago, at Tongmunhak, which was established by Paul George von Mollendorf, a German advisor of the Korean royal court, with the support of King Kojong. The purpose of the school was to train interpreters. A British English teacher, Thomas Edward Hallifax, was commissioned to run the school and also teach English. From 1886, American missionaries opened several other schools in Korea and taught English as an avenue for missionary work (cf. Moon 1976). The direct method of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was predominant at that time, and was to some extent fruitful. Unfortunately, however, from the 1920s the trend in teaching the language tilted to the memorization of grammatical rules and test-taking techniques (cf. Moon 1991), and emphasized written rather than spoken English. This skew continued to dominate until the early 1990s, when cultivating communicative competence came to be a motto of English teaching in South Korea.

Currentl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overwhelmed by a zest for English. The whole country seems to be in the grip of 'English fever', and many factors, internal and external, have added fuel to the flames. A key factor has been educational reformation, which came into effect in 1993, with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is brought about a drastic change in the teaching of English. The test included listening items for the first time in a nationwid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Eight of the 50 question items of the test were for listening comprehension in 1993. The figure increased to 17 out of 55 items in 1996. The change had diverted the flow from time-worn grammar-and-translation-oriented teaching toward spoken English, exerting a tremendous influence on overall English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s.

계속되는 기사는 본교 홈페이지(www.igse.ac.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Year	Course
1st Y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roduction to Department of English English for Business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Teaching Introduction to TEFL Methods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Teaching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Teaching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Teaching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Teaching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Teaching
2nd Y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3rd Y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4th Y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Expans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IGSE

영어를 잘 하는
영어교육 전문가,
당신의 바람이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2004년 미국 전공 연수 사진

2005학년도 가을학기 대학원 전액 장학생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인원 (일반전형)

계열	학과	모집인원	비고
인문 사회 계열	영어지도학과 영어교재개발학과	석사과정 50명	전학기 전원 장학생

2. 특전 및 학위과정 특징

- (1) 진원에게 4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 지급
- (2) 재학 기간 중 해외 전공 연수 지원
- (3) 재학 시 성적이 뛰어나게 우수한 학생은 졸업 후 해외 유명 대학에 박사과정 유학 시 적극 지원 예정
- (4) 매학기 주당 10시간의 영어회화(3학점)와 영어작문(3학점) 수강

3. 지원자격

-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05년 8월 취득 예정자
-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인터넷 문의 : www.igse.ac.kr / 입학 희망자 게시판
- 입학상담전화 : 080-804-0505(수신자 부담) 대표전화 : 02)6477-5114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